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누리에 가득한 찬양

(시편 65:1-1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어도 땅이 토해 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는 1년 농사가 잘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1.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으며”(1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국가를 주셨고, 일터와 일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2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간상 지체는 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에 입성시키시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해와 달도 중천에 멎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로 우주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가 기도를 들으시고 앗수르 대군을 멸망시키셨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다. 기도의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곧 모든 육체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최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3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 씻을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므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4절).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의 뜰에 살게 하셨으니 베푸신 신령한 은혜에 만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2.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5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손이 짧은 분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란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6절),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7절), 아침이 시작되는 동쪽 거민과 저녁이 시작되는 서쪽 거민들, 즉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국가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3. 풍요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11절).

하나님이 땅을 돌보셔야 곡식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어도 땅이 토해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는 1년 농사가 잘된 것을 말합니다. 흠족한 비와 넉넉한 강물, 초장에는 양떼가 있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 찼으니 풍요로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풍요로운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9절).

옛날 사람들은 전쟁과 질병, 기근과 흉년은 죄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풍작을 감사하는 노래는 풍작보다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13절).

초장과 골짜기와 양떼와 곡식이 어떻게 외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찬양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 19:40)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초장과 골짜기, 양떼와 곡식이라도 하나님께 소리칠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풍년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리에 가득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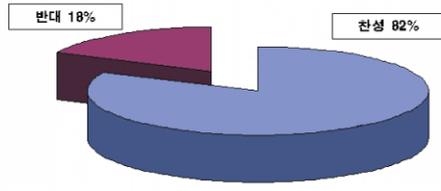
주일 국가시험 폐지 여론조사 결과

82% - 폐지 찬성

지난 8월2일 국회의원포럼과 한기총 주최로 열린 '일요일 국가시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종운 목사가 주제발표를 한 후 8월8일 조선일보에는 한 주간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8월14일(화) 마감된 주일국가시험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선일보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82%가 주일에 치르는 국가시험을 폐지하고 다른 날로 옮기는 것에 찬성 하였다.(조선일보 8월15일자 A25면 참조)

우리나라에서 주일에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이 반드시 폐지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100만인 전도운동 계속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중에도 100만인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100만인 전도운동본부(위원장 김광신 장로)는 그 동안 교회에 제출된 '전교인 전도실천 신청서'를 기초로 1주일에 3일(수, 토, 주일)에 다음과 같이 조를 편성하여 전도에 임하고

있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기 바란다. 전도실천 신청은 사무국에서 계속 접수하고 있다.

요일	시간	구분	전도대원
수	오후1:30-3:30	1진	김숙자, 이봉선, 이규희, 김정순, 유승순, 김용복
		2진	정애신, 정연택, 정기자, 김혜경, 홍광숙, 정중순
		3진	서영세, 정미연, 윤숙희, 박정임, 조정옥, 김수호, 이정연, 김수원
	오후7:30-9:30	1진	은기장, 배준길, 강승용, 서경애, 이승문, 박정임
2진	한상준, 송인수, 김영주, 이부자, 정정숙		
토	오후3:00-5:00	1진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지혜영, 박광일 박금실, 임규현
		2진	장석남, 박혜원, 신혜영, 안승민, 이범우, 오경래, 정승용, 최정희, 김지홍, 강창진, 이현숙
		3진	서명철 장정남, 허생영, 오주영, 우영환, 김은비, 고아라, 이우리, 안지훈, 김도현, 이하나, 강해주, 김성신, 이교은, 박계원, 김필구, 김성국, 양혜선, 한정환, 박성기
	오후5:00-7:00	1진	은기장, 박태선, 김상태, 진경자, 김영준
		2진	한상준, 배준길, 송인수, 이승문, 이부자
		3진	
주일	오후1:00-3:00	1진	최규초, 김영희, 박명철, 박광식, 안홍희, 오정수, 김시환, 강석조, 이은상
	오후3:00-4:30	2진	남태순, 김미선, 최중희, 박정임, 허숙, 김숙자, 김경희

31기 전도학교 개강

8월28일(화) 603호에서

정규과정으로 진행되는 31기 전도학교가 8월 28일(화) 오전 10시 603호에서 개강된다. 전도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07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커리큘럼 확정

9기 결혼예비학교 시작으로

8월26일(주일)

2007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의 모든 커리큘럼이 확정되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제9기 결혼예비학교가 다음 주일(8월26일) 시작으로 프로그램별 일정 에 따라 일제히 개강한다.

성도와 이웃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성경을 배우며 여가시간도 선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2007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도록 기도한다.

접수는 8월26일(주일)부터 사무국에서 받으며 수강료는 과목당 10,000원이다.

<2007년도 하반기 주부대학>

날짜	과목	강사
9/4	신앙과 가정	정수길 목사
9/11	커피의 이해	안진선 성도(카페-별 대표)
9/18	자녀의 학습보장자원은 얼마입니까?	신인순 집사(신여지 학원원장)
9/25	휴가(추석)	
10/2	암 예방과 영양관리	나미용 집사(삼성의료원)
10/9	피부미용	전승순 실장(트브화장품)
10/16	현대미술의 이해	전광영 집사(화가)
10/23	음악, 그 아름다운 세계로	박정선 장로(단국대 음대교수)
10/30	활기찬 중년여성의 건강관리	이은진 권사(약학박사)
11/6	현대여성성과 디자인	유은경 교수(이학박사)

<제6기 세계선교대학>

<2007년도 하반기 교사양성반>

<15학기 실용경로대학>

날짜	과목	강사
9/3	선교학 개론	한국어 교수(장신대)
9/10	세계선교 역사	김동화 목사(GMF 법인사역 대표)
9/17	한국의 선교와 개교회	손운탁 목사(중곡동 교회)
9/24	추석	
10/1	선교와 인류	김영동 교수(장신대)
10/8	선교의 유형들	김태정 목사(HOPE 본부장)
10/15	총회선교정책과 현황	신방현 목사(총회세계선교부 총무)
10/22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김종일 선교사(전 터키선교사, 터키근로자 선교)
10/29	누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나?	김태연 박사(GPI 원장)
11/5	선교와 문화	김세도 목사(전 터키 선교사, GMP 대표)

날짜	과목	강사
9/9	교회교육의 목표	이태훈 목사
9/16	구약 개설	정수길 목사
9/23	신약 개설	장석남 목사
9/30	교사의 자질	한상은 목사
10/7	반목회	윤영국 목사
10/14	성경적 교회론	이태훈 목사
10/21	학생의 이해(발달심리)	한상은 목사
10/28	학습지도	서명철 목사
11/4	교사와 학생	지혜영 전도사
11/11	예배의 자세	윤영국 목사

날짜	과목	강사
9/6	풍요로운 노년의 삶	금동학 장로(강남구노인복지관장)
9/13	2007열린바자	
9/20	눈 관리	노재현 전문의(명동안과의원)
9/27	웃음으로 여는 건강과 행복	오해일 장로(세일간호학원원장)
10/4	치아 관리	박경정 원장(박치과)
10/11	야외수업	
10/18	북한 현실과 민족 복음화	박광일 전도사
10/25	노인성 만성질환	신동혁 박사(미즈메디 병원)
11/1	신나는 레크레이션	서석정 장로(전 남서중학교 교장)
11/8	노인과 바다 그리고 나	김재진 목사(서울교회)

<2007년도 하반기 교구일꾼 양성반>

<제9기 결혼예비학교>

<제2기 마리아 학교>

날짜	과목	강사
9/9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9/16	그룹기도 인도	이태훈 목사
9/23	다락방 전도대	윤영국 목사
9/30	성령의 은사체코	정수길 목사
10/7	다락방 모임 시 집단상담	서명철 목사
10/14	다락방 성경공부 인도법	한상은 목사
10/21	다락방과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10/28	다락방장의 리더쉽	장석남 목사
11/4	이단연구	한상은 목사
11/11	다락방 행정	지혜영 전도사

날짜	과목	강사
8/26	성경적 결혼관	이규정 목사
9/2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주원순 선생
9/9	신혼의 성스러운 성	이은진 권사
9/16	결혼과 재정관리	김금준 집사
9/23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박금실 전도사

<찬양대양성반> 강사: 박정선 장로

날짜	과목	날짜	과목
9/2	찬양과 예배/경건의 찬양	9/30	호흡과 발성법/계명창법
9/9	호흡과 발성법/음표와 쉽표	10/7	호흡과 발성법/지휘보는 법/찬양대 역사
9/16	호흡과 발성법/리듬과 박자	10/14	호흡과 발성법/각 찬양대 소개
9/23	호흡과 발성법/계명창법		

날짜	과목
9/6	입학예배
9/13	2007 바자
9/20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어린이
9/27	다비다와 같이 섬기는 어린이
10/4	야외학습
10/11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10/18	에스더와 같이 용기있는 어린이
10/25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어린이
11/1	히라미와 같이 감사하는 어린이
11/8	수료예배

특별기고 - 아프리카니스탄 인질사건을 바라보면서

선교와 순교

김인수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세상사람들이 흔히말하는 세계 4대 종교, 즉 인도의 힌두교, 아시아의 불교, 중동의 이슬람, 그리고 서구라파와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중에서 전투적으로 선교를 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다. 따라서 이 두 종교는 선교 현장에서 부딪칠 수 밖에 없고 이 두 종교의 역사는 쟁투의 역사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구약,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시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그 조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온 기독교와 이슬람은 배다른 형제간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원한 관계는 멀리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후 622년, 마호메트에 의해 발흥된 이슬람은 전투적 성격을 띠고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와 서구라파까지를 그 영향권으로 둘 정도로

무섭게 그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면서, 이 두 종교 간의 원한은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첨증되어 갔다. 한 때는 이슬람 문화가 서구의 그것을 능가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문화, 특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슬람이 뒤쫓아 올 수 없는 정도로 앞서 가면서 이슬람을 제압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슬람은 빈곤과 무지, 편견으로 점철된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서구라파를 중심으로한 기독교 문화권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약소민족과 국가들이 차례로 독립을 하면서 이슬람 지역 역시 독립을 하였다. 이들은 독립을 얻은 후에 반서방, 반기독교를 내세우고, 기독교 국가와 세력에 적대적 태도를 취해 왔다.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으로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반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지만 힘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치나 자살테러라는 극단적 수단을 쓰는 일이 현실화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종교이다. 이는 예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한다. 120여년 전, 어둠에 앉아 있던 한국 땅에도 여러 기독교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

계 교회가 주목하게 되었고, 통계숫자로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간다는 말 속에는 선교지에서 죽어 순교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세계교회 역사, 특히 아시아 교회사를 읽어보면 선교사들이 처형되어 순교하는 일과, 병이나 사고로 죽는 일이 비밀비재하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선교는 곧 순교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를 돌아보면, 그들은 교회에서 자원하는 신자들로 현지에 봉사하러 갔다. 물론 의료, 미용, 교육 등 오랜 전쟁 속에서 피폐해진 그곳의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아니고, 현지 봉사를 위해 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봉사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봉사를 하러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들이 겪는 고난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지금은 100년 전의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아니다. 21세기 문명의 세계이다. 문명국에는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부인하는 나라는 문명국일 수 없다. 무엇보다 인명을 담보로 무엇인가를 얻어 보려는 작태는 인류의 이름으로 고발되고, 단죄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이나 대의를 내세운다 해도 인간을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이미 두 사람이 저들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순교이다. 초기 교회 교부 터툴리언(Tertullian)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갈파했다. 두 분의 위대한 순교의 피는 아프가니스탄에 교회의 씨가 될 것이다.

남아 있는 19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고 자매된 그들이 무사히 가족에게, 교회로, 그리고 모국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린다. (2007. 8. 16.)

나의 하나님

아프칸의 별

신동기 권사(12교구)

분열의 땅
아픔의 땅
상처 난 아프칸을 가슴에 품고
사선의 경계 속에
생명으로 생명을 사는
거룩한 용사들이여

죽음이 날아드는
아골 골짜기
짐승처럼 피랍되어 사납게 찢기고
총알을 장전하는
간 떨어지는 소리에
울지도 못하며 숨 멎는 순간들

새벽이슬 스러지던 아침
칸타하루 계곡의 내던져진 몸뚱이는
아프칸을 위한 어린양의 죽음
총성으로 지구가 흔들렸으며
조국의 하늘엔 구멍이 뚫렸다

값진 생명
위대한 순교자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늘 우러르던
지순 무구한 남이시여

그 하늘에
붉은 초승달이
십자가 찬란한 별 되어 떠있고
지금도 이슬람 심장
장엄하게 흐르는 고귀한 피
칸타하르 계곡을 휘돌아
세계 열방으로 넘쳐 흐른다

이제
열아홉의 하늘나라 사람들
소리 없는 신음으로
가슴은 활처럼 휘어지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의 합성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 되어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리라

살아계신 주!

“ 120여년전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다 ”

“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

만민에게 전도 - 전도학교 수료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길...

남경희 성도(13교구)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 속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공부욕심이 많았던 남편을 따라 대치동으로 이사 온 후, 70인 전도대의 인도를 받아 서울교회에 등록하였고 지속적인 권유로 전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학교에 들어와 보니 전도대원들의 전도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고, 온유하고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어서 그 성품을 닮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또한 장석남 목사님의 기독교 변증에 대한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신앙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정리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13주 동안 화요일 오전에 전도교육을 받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훈련자 집사님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 도곡plex 아파트로 전도실습을 나갔습니다.

막상 전도현장에 가 보니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 문을 안 열어 주었고, 문을 열었다가

도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귀찮다는 듯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무안하기도하고 두렵기도하여 훈련자 집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로 복음의피로 그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리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집을 방문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적이라서 절에 나갈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자 집사님은 침착하게 대답하기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세요"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화요전도학교에 들어와 전도하면서 얻은 축복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에 동참할수 있으며 또한 저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점점 평안해 지고, 나의 시각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할 것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를 70인전도대 화요전도학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있다는 것에 감사

특별찬양

임마누엘찬양대 주관으로 소프라노 이윤숙 선생(연세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강사이) 특별찬양을 드린다. 연주 곡목은 하나님의 은혜(신상우 작곡)의 2곡이다.

김지나 양귀국

12교구 김차량 집사(선연자 권사)의 딸 김지나 양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억류된 지 35일만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특을 받고 지난 17일(금) 귀국하였다. 남아 있는 이들의 귀국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란다.

서울 아기사랑 음악회

유아부 주관으로 8월25일(토) 오후 5시 서울 아기사랑 음악회가 열린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월)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산교회 전국연합회 대회에서 주제 특강을 한다. 24일(목)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동문화 임원회를 소집한다.
- 수상: 고등부 김근구 학생 총회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에서 모범학생 수상
- 고등부 곡지승 학생(2교구 곡종철 한현숙 집사 장녀) National Flute Association Convention 1등 수상, 2007년 Best Performance Award, Jefferey Gilbert 장학금 수상자 선정
- 교역자하기휴가: 장석남 목사(8.20 - 8.25)
대행 정수길 목사(010-6401-9117)
윤영국 목사(8.20 - 8.25)
대행 한상은 목사(010-5490-1093)
- 주간식당봉사: 뽕뽕전도회(8.19) 마리아전도회(8.26)
- 금주의 식사: 김만운 성도 · 장호림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 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시온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김숙자 집사
(시온찬양대원)



주일에 풍성한 은혜로 충전된 성도들의 영혼에 또 한 번 물을 부어주는 수요 예배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한다. 특히 2부 예배는, 직장인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은혜로운 잔치다. 서둘러 교회에 도착한 시온찬양 대원들은, 예정된 시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못내 송구스러울 때가 많다. 짧은 시간에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열심을 다해 연습에 몰입될 때에야 비로소 주님 주신 기쁨이 마음 마음들에 젖어 드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주님이 충성되어

기시어,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사, 성호를 찬양케하므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려고 다짐하고 또 확신한다. 예배중에 회중을 바라보고, 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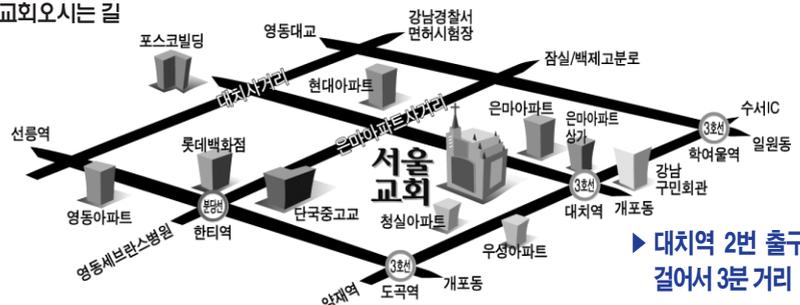
도 모든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교회로 달려왔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에 우리 찬양대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 시켜준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 하며...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2. 무더위에 온 교회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3.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성도들 무사 귀환토록
4. 의와 평강과 화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